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스몰캡 아이디어 2월호

■ 기업/산업분석

스카이라이프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월간 매크로 포커스, KIS Style Idea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TPC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경제분석 | 박정우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분석 | 오창섭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크레딧분석 | 김기명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중
글로벌기업 | 김시우

최문선	moonsun@truefriend.com
이동윤	leedy@truefriend.com
한상웅	sangung@truefriend.com

스몰캡 아이디어 2월호

한투 생각(1): 중소형주 전망 review 및 정책 점검

한투 생각(2): 이제 셋톱박스도 AI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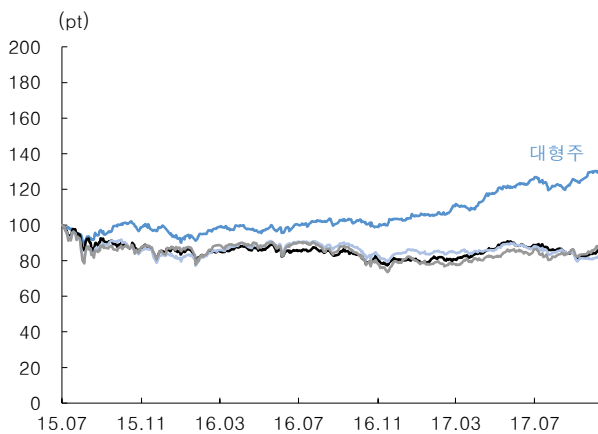
Top picks 신규 편입: SIMPAC Metal, 에스디생명공학

I. 중소형주 전망 review 및 정책 점검

2018년 11월 이후 KOSPI
 중소형주 12%, KOSDAQ
 30% 상승, KOSPI 대형주
 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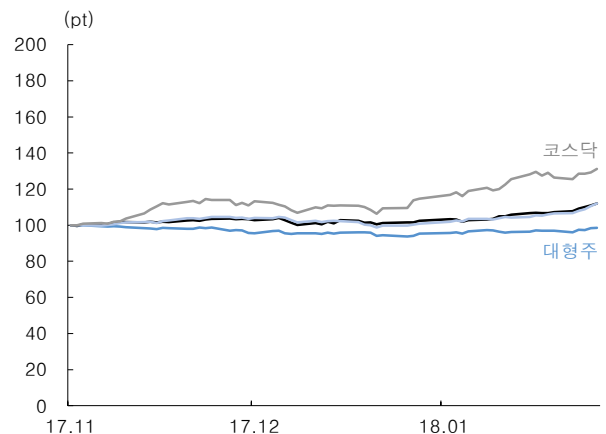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2018년 전망 자료에서 2018년이 중소형주 약진의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 이유로 1) 중국 모멘텀 부활, 2) 대형주 이익 증가 모멘텀 약화, 3)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을 꼽았다. 결론적으로 2018년 11월 이후 KOSDAQ 지수가 30%, KOSPI 중소형주 지수는 12% 상승한 반면, 대형주 지수는 1% 하락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전망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 국면이 완화되면서 중국 모멘텀이 살아나 관련 업체들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 대표적으로 면세점과 화장품 중소형주의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review의 필요성이 없다.

[그림 1] KOSPI 대, 중, 소형 지수와 KOSDAQ 지수 - 2015년 7월 ~ 2017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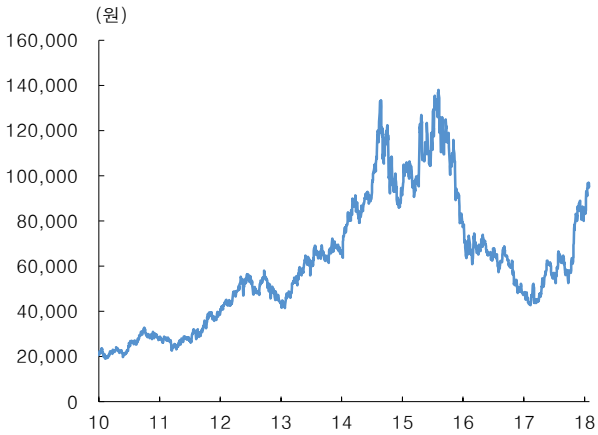
주: 2015년 7월 15일 지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산출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KOSPI 대, 중, 소형 지수와 KOSDAQ 지수 - 2017년 11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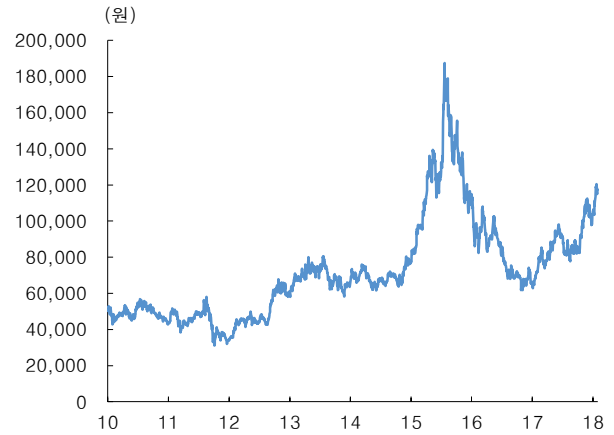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호텔신라 주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4] 하나투어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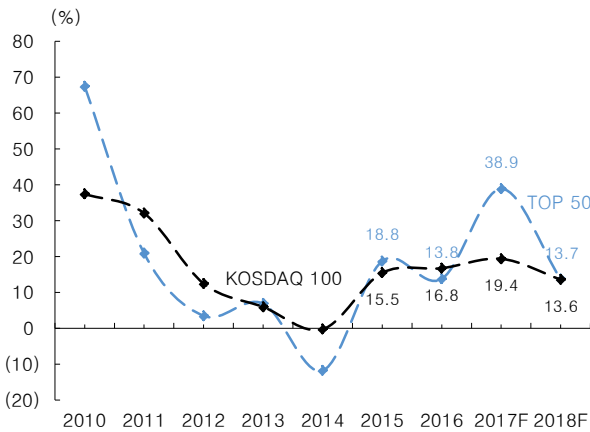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2018년, 돋보이는 KOSDAQ 100위 업체 이익증가율

KOSDAQ 펀더멘털에 따라
2018년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익증가 차이 해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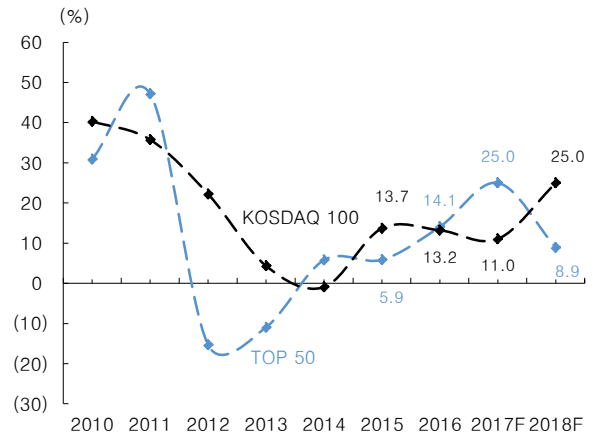
2018년에 중소형주가 약진할 것이라 판단한 두번째 이유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의 차이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국내 시가총액 50위 업체의 이익 증가율과 KOSDAQ 상위 100개 업체의 이익 증가율을 비교하면 2017년이 유독 시가총액 50위 업체의 이익 증가율이 KOSDAQ 50위 업체 대비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2018년에는 차이가 해소된다. 이번에는 1) 2010년 이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 이익 증가폭이 지나치게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17년은 위와 동일하게 시가총액 50위 업체의 이익증가율이 월등히 높은데, 2018년에는 반대로 KOSDAQ 100위 업체의 이익 증가율이 크게 상회한다. 최근 KOSDAQ 지수의 강세가 펀더멘털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그림 5] 시가총액 상위 50개 vs KOSDAQ 100위 업체 이익증가율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시가총액 상위 50개 vs KOSDAQ 100위 업체 이익증가율 (적자기업 제외)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자료: 한국투자증권

정부 정책 실현되며 중소형주 강세 이어질 것

1월 11일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KOSDAQ 지수 11%
상승

우리는 중소형주 약진의 마지막 동력으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꼽았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어서 막연한 기대감만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4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을 내 놓았는데, 한 마디로 ‘KOSDAQ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관련 부서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표 1>. 정책 발표 이후 KOSDAQ 지수가 927.05포인트로 11%나 상승했다. 전방위적인 정책에 시장이 화답한 형국이다.

1분기부터 시행되는 법,
규정,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이 중소형주 강세
지속시킬 전망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1) 신성장 R&D 세액 공제 확대와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에 대해 지난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부가 융자계획 공고를 개정한 것 등 두 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거래소, 공정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이번 1분기부터 법, 규정, 정관, 시행령, 시행세칙 등의 개정 작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개정 작업들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중소형주 강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3대 전략	추진 과제	주요 항목	주요 세부 내역	향후 일정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세제/금융지원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벤처기업 신주에 코스닥 신주/구주에 35% 투자 시 - 1인당 3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조특법 시행령 및 인수업무규정 개정(18.1Q)	
		기관투자자 참여유인 제고	연기금 차익거래 거래세 면제	연기금 투자 확대 유도 -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조특법 개정(18.하)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선(18.하)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 다양한 벤치마크 지수 개발 - 코스피/코스닥 통합 지수 출시(2월) -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6월)	통합지수 개발(18.1Q)	
			Scale-up 펀드 3,000억원 조성 - (예) 시가총액이나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기업 투자	신규 펀드 조성(18.상)	
			코스닥 상장기업 지원 확대 - 현행 30%, 40%로 상향 기술특례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현재는 불가능, 향후 상장 3년 이내 기업 융자 허용	조특법 기 개정 완료(17.12)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17.12)	
	상장요건 전면 개편	이익미실현 요건(테슬라 요건) 확대 등 개편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폐지 - 약 2,800개 기업 잠재적 상장 대상 편입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8.상)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부담 완화	우수 주관사,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 풋백옵션 면제	인수업무규정 개정(18.상)	
	자본시장 인프라 및 혁신적 플레이어 양성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전문가 전용 비상장 거래플랫폼 신설	K-OTC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 신설 - 거래세 인하(0.5% → 0.3%) - 중소/중견기업 양도소득세 면제(18년 4월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상)
			코넥스 시장 자본조달 기능 제고	코넥스 소액 공모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촉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상)
		투자정보 확충 및 상장유지비용 절감	기술분석보고서 등 기업 투자정보 확충	코스닥 상장 약 1,200개 업체 기업 분석보고서 제공 목표	거래소/예탁원/금투협 사업 실시(18.상)
이익미실현기업에 대한 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테슬라 요건 적용기업 거래소 수수료 3년간 면제	거래소/예탁원 지원 사업 실시(18.상)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	등록제로 전환, 자본금요건 완화(30억원→15억원)	자본시장법 등 개정(18.하)	
		PEF 진입/운용 규제 개선	창투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 허용, 기업결합신고 면제 추진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18.하)	
		클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하)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강화	18년 1조원 조성, 집행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18.상)			
글로벌 수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회계부정/감사 부실 과징금 상한 20억원에서 상한 폐지	금융실명법 및 외부감사법 하위규정 개정(18.하)	
		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제3자 요청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신용평가시장평가위원회 개최(18.상)	
		상장사 공시실무 지원 확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 라인' 제공	공시교육 실시(18.상)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조건 충족 기관투자자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요건 충족 연기금 지분보유 공시 부담 완화	외감법 시행령 개정(18.상)	
		소액주주의 견제기능 강화	요건 충족 연기금 투자일임 시 의결권 위탁 허용 검토 새도우보팅 제도 일몰(18년 1월)	모바일 전자투표 홍보(18.상)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기업지배구조 모범사례 제공하고 공시를 단계적으로 허용	해설집 마련, 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18.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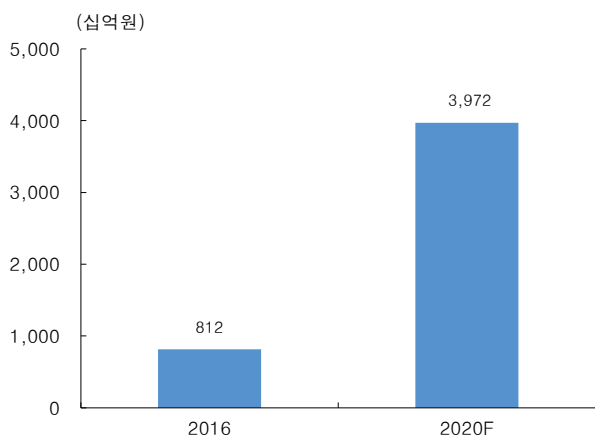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투자증권

II. 이제 셋톱박스도 AI시대

AI스피커 출하량 급증 글로벌 시장은 아마존 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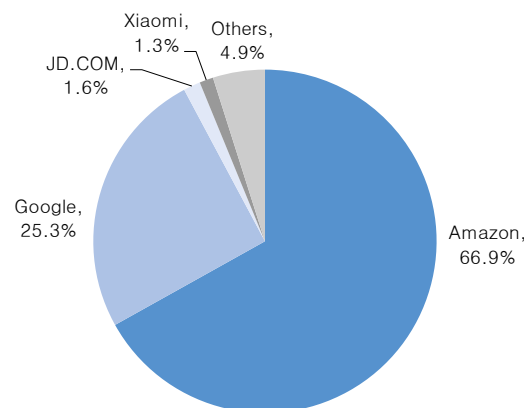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인 Strategic Analytics(SA)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글로벌 AI스피커 출하량은 740만대로 전년 동기의 90만대 대비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측면에서 아마존이 독주하고 있다. SA에 따르면 아마존은 글로벌 AI스피커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인 컨슈머 인텔리전스의 발표도 유사하다. 아마존의 AI스피커 ‘에코’는 지난 해 3천 100만대가 판매되며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다. 2014년 11월 ‘에코’를 출시하며 개인용 음성비서 기기 사업을 한발 앞서 시작한 아마존은 알렉사를 음성기반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Assistant), 삼성 빅스비(Bixby), 애플 시리(Siri) 등도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 상 초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2017년 CES에서 아마존이 밝힌 알렉사의 스킬은 7천개 수준이었으나 1년이 지난 스킬의 수는 3만개로 증가했다. 스킬 수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이 내리는 명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 글로벌 AI 스피커 시장 규모



자료: SA,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글로벌 AI 스피커 시장 점유율



자료: SA, 한국투자증권

국내도 다수의 제품 출시 17년 판매량 100만대 돌파

아마존 ‘에코’가 출시되지 않은 국내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던 AI스피커 시장이 통신 3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포털회사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뛰어들며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AI스피커 판매량도 지난 해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 출시된 KT의 기가지니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했으며 SK텔레콤의 누구와 17년 4분기에 출시된 네이버 프렌즈와 카카오미니의 판매량을 감안하면 100만대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AI스피커와 관련해 인포마크(네이버), 블루콤(LG유플러스), 아이리버(SKT) 등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AI스피커의 기능은 업체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AI스피커의 활용은 대부분 음악감상과 날씨 및 일정 확인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업체들이 AI스피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사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림 9] KT 기가지니



자료: KT

[그림 10] SKT 누구



자료: SKT

[그림 11] 네이버 프렌즈 / 카카오키니



자료: 각 사

AI스피커 업체보다는
AI셋톱박스 관련 업체가
투자 매력 높아

우리는 오히려 AI셋톱박스에 주목하고 있다. AI셋톱박스는 TV뿐만 아니라 실내 가전제품을 비롯해 통신사들의 홈 IoT서비스와 연동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 셋톱박스의 교체수요에 UHD 전환이 맞물려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도 대응 가능한 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AI기능을 비롯해 음성인식 등 각 종 소프트웨어와 셋톱박스의 연결 기술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I셋톱박스 시장 확대
수혜주로 가운데미디어,
알티캐스트 제시

수혜주

KT의 인공지능 TV서비스 ‘기가지니’의 가입자수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SK브로드밴드도 지난 25일 AI IPTV 서비스인 ‘Btv 누구’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인공지능 TV서비스 초기 국면에서 관련 제품 매출 확대에 따른 이익 기여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가운데미디어와 알티캐스트다. AI셋톱박스 시장 확대의 수혜주로 제시한다.

가운데미디어: 2017년 공급을 시작한 KT 기가지니 셋톱박스 출하량이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셋톱박스 공급처 확대가 실적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해외 고객사향 공급 가능성도 존재한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21%와 36% 증가한 6,250억원과 292억원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주요 원재료인 DRAM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은 AI셋톱박스 매출 비중도 상승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DRAM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성 개선 폭은 더욱 확대된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은 7.5배다.

알티캐스트: 기가지니 셋톱박스 박스 내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공급 중이다. 셋톱박스 출하량 증가로 로열티 매출이 늘어나 수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올해는 Charter향 수출 실적이 온기로 반영된다. 게다가 국내시장은 SKB와 LG유플러스를 제외한 국내 주요 유료 방송 사업자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UHD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수혜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15%와 97% 증가한 855억원과 130억원이다. 예상 실적 기준 2018년 PER은 9.7배다.

** 이 자료는 2018년 1월 31일자로 발간된 <스몰캡 아이디어 2월호>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스카이라이프 (053210)

신규 서비스로 가입자 증대에 나선다

4분기 손익은 콘텐츠 가격 인상, 신사업 비용 반영으로 예상치 하회
 18년은 인터넷방송,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등으로 매출 성장성이 회복될 전망
 배당 수익률이 2.4%로 배당 메리트가 높음

Facts :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

4분기 영업실적은 우리 추정치 및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별도 매출액은 1,709억원으로 추정치를 9.2% 상회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광고 매출액이 예상보다 많았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65억원, 107억원으로 각각 14.5%, 27% 하회했다. 콘텐츠 구매비용과 신사업 관련 장비 구입비용이 늘고 Sky TV 관련 금융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매출액은 플랫폼(광고, 홈쇼핑 수수료) 매출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0.4% 늘었다. 상품 판매 등 기타 매출도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영업이익은 16년 4분기에 콘텐츠 가격을 인상해 소급 반영(97억원)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5.1% 늘었으며, 17년 3분기에 방송 발전기금 85억원을 반영한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20% 증가했다. 일회적 비용 제외 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4%, 전분기대비 25.9% 줄었다.

Pros & cons : 18년은 신규 서비스로 성장성 회복 예상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가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질적 성장과 신규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첫째, 위성방송은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나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UHD 가입자 비중이 상승하며 가입자 구성이 개선되고 있다. UHD는 가입자 비중이 16년 10.5%에서 17년 19.4%로 상승했다. 둘째, 17년 3분기에 출시한 Skylife LTE TV, OTT, KT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등 신규 서비스로 가입자를 늘려갈 것이다. 터널 등 음역지역 해소를 위해 위성TV와 LTE를 결합한 Skylife LTE TV 가입자는 17년 12월에 4,875명으로 늘었다. 맞춤형 TV 기반 OTT 서비스인 TELEBEE와 KT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도 각각 16,741명, 5,953명으로 증가했다. UHD, TELEBEE 등으로 ARPU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8년 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3.7%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수익 영향이 없는 채널임대 수익을 제외하면 8% 증가할 전망이다. 18년 영업이익은 신규 사업관련 비용 반영으로 4.5% 감소할 것이나 19년에는 홈쇼핑 수수료 인상, 신규 사업 흑자 전환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회 부합 상회

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대비를 의미

매수(유지)

목표주가: 20,500원(유지)

Stock Data

KOSPI(1/30)	2,568
주가(1/30)	14,700
시가총액(십억원)	703
발행주식수(백만)	48
52주 최고/최저(원)	17,150/12,8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1,089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42.3/16.1
주요주주(%)	케이티 외 1인 50.0
	Templeton 외 10인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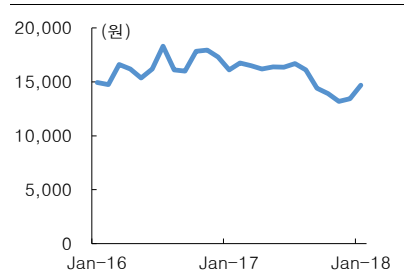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2016A	2017F	2018F
PER(x)	12.0	11.4	12.4
PBR(x)	1.5	1.2	1.1
ROE(%)	13.3	10.9	9.3
DY(%)	2.4	2.4	2.4
EV/EBITDA(x)	3.7	3.0	2.8
EPS(원)	1,443	1,290	1,182
BPS(원)	11,488	12,421	13,247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3	(12.0)	(10.1)
KOSPI 대비(%p)	5.2	(18.9)	(33.3)

주가추이



자료: WISEFn

양종인

jiyang@truefriend.com

조민영

minyoung@truefriend.com

Action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0,500원 유지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0,5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목표 PER 17.2배(과거 3년 평균 8% 할증, 15년은 조정 EPS 적용)을 적용해 산출했다. OTT 등 신규 서비스로 성장성이 회복될 것이다. 배당수익률이 2.4%로 높다. KT와 스카이라이프는 6월까지 합산 점유율 33.3% 규제를 받고 있어 가입자 유치가 제한되고 있다. 규제 완화 시 KT 그룹은 가입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표 1> 4분기 실적 및 컨센서스

(단위: 십억원)

	4Q16	1Q17	2Q17	3Q17	4Q17P	QoQ(%)	YoY(%)	컨센서스
매출액	154.8	155.3	155.7	164.9	170.9	3.7	10.4	164.8
영업이익	8.9	24.3	19.8	13.7	16.5	20.0	85.1	19.3
영업이익률(%)	5.7	15.6	12.7	8.3	9.6			11.7
세전이익	7.3	24.2	20.2	14.3	14.5	1.3	94.8	19.9
순이익	12.3	18.4	15.3	10.8	10.7	(1.5)	(14.2)	15.3

자료: 스카이라이프,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표 2> 스카이라이프 실적 추이 및 전망(별도 기준)

(단위: 십억원, %, %p,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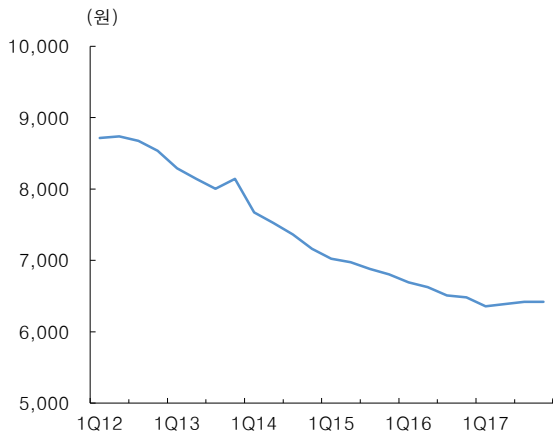
	2016				2017				2016	2017F	4Q17		컨센서스
	1Q	2Q	3Q	4Q	1Q	2Q	3Q	4QP			QoQ	YoY Consensus	
매출액	149.9	161.4	159.0	154.8	155.3	155.7	164.9	170.9	625.1	646.8	3.7	10.4	164.8
방송수신료	86.6	85.9	84.9	84.8	83.2	83.7	84.3	83.8	342.2	335.1	(0.6)	(1.1)	
플랫폼	41.0	49.9	49.5	45.5	50.7	51.5	55.9	62.1	185.9	220.2	11.0	36.4	
TV 광고	6.1	7.5	7.9	7.9	9.2	10.5	10.6	11.3	28.0	41.7	6.5	55.4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30.7	33.3	33.3	30.7	41.6	41.6	41.8	44.8	152.2	169.9	7.3	17.9	
비용수반성	10.5	10.8	11.3	10.8	7.7	7.7	7.6	7.4	43.4	30.3	(2.9)	(31.7)	
기타	11.8	14.8	13.2	13.8	13.8	12.9	17.0	17.6	53.6	61.3	3.4	28.0	
영업이익	23.1	29.0	17.1	8.9	24.3	19.8	13.7	16.5	78.1	74.3	20.0	85.1	19.3
영업이익률	15.4	18.0	10.8	5.7	15.6	12.7	8.3	9.6	12.5	11.5			
세전이익	23.5	28.9	17.4	7.3	24.2	20.2	14.3	14.5	78.0	73.2	1.3	94.8	
세전이익률	15.7	17.9	10.9	4.7	15.6	13.0	8.7	8.5	12.5	11.3			
순이익	17.8	21.8	13.1	12.3	18.4	15.3	10.8	10.7	65.9	55.2	(1.5)	(14.2)	15.3
순이익률	11.8	13.5	8.3	8.0	11.8	9.8	6.6	6.2	10.5	8.5			
가입자													
전체	4,311	4,338	4,359	4,360	4,362	4,376	4,379	4,364	4,360	4,364	(0.3)	0.1	
위성단독	2,147	2,219	2,283	2,336	2,381	2,434	2,485	2,527	2,336	2,527	1.7	8.2	
OTS	2,164	2,119	2,075	2,024	1,982	1,941	1,894	1,837	2,024	1,837	(3.0)	(9.2)	

주 1. OTS는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2. 비용수반성은 채널임대 등 마진이 없는 중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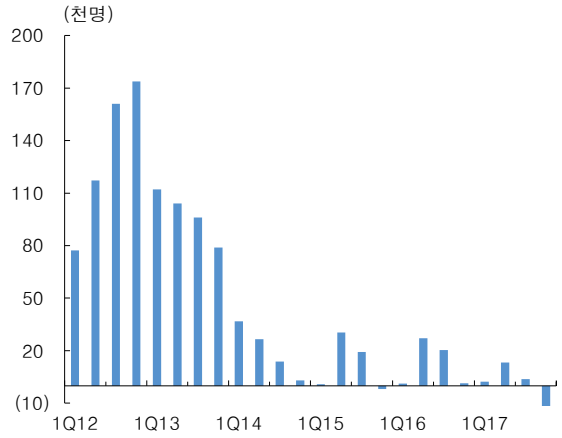
자료: 스카이라이프,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1] 방송 ARPU 추이



자료: 스카이라이프,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가입자 순증 추이



자료: 스카이라이프, 한국투자증권

<표 3> KT와 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KT 그룹 가입자	9,032	9,211	9,378	9,542	9,714	9,881	9,999
KT의 IPTV 가입자 수(단독)	4,694	4,853	5,018	5,179	5,339	5,502	5,635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단독)	2,219	2,283	2,336	2,381	2,434	2,485	2,527
OTS(결합)	2,119	2,075	2,024	1,982	1,941	1,894	1,837
국내 IPTV 가입자 수	13,434	13,385	13,737	14,083	14,427	15,114	15,421
국내 케이블 TV 가입자 수	14,459	13,853	13,887	13,929	13,968	13,982	13,968
국내 유료 가입자 수	30,112	29,521	29,960	30,393	30,829	31,581	31,916
KT 그룹 M/S	30.0	30.2	30.3	30.4	30.5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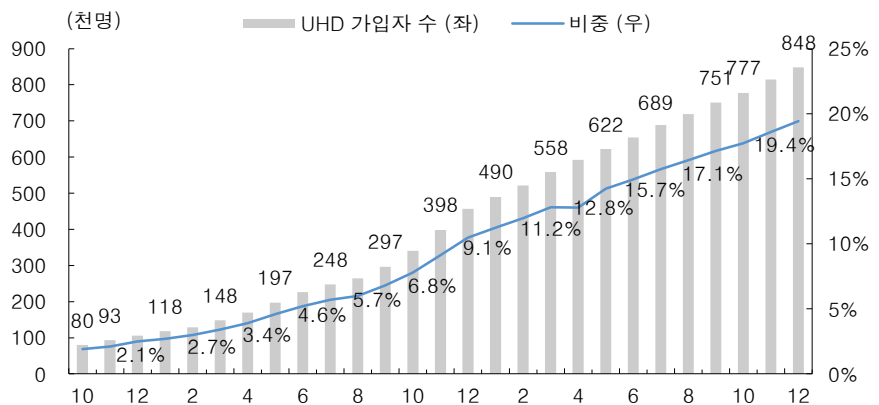
주 1. OTS는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2. 국내 유료방송, IPTV, 케이블TV, KT 그룹 점유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기준

3. KT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각사 제공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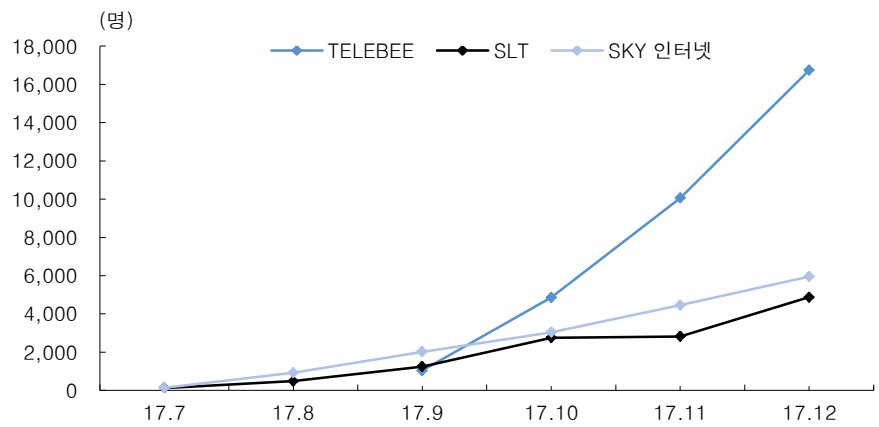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스카이라이프,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월별 UHD 가입자 추이



자료: 스카이라이프, 한국투자증권

[그림 4] 3대 성장 서비스의 가입자



자료: 스카이라이프,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KT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다.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OTS와 위성방송 단독가입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UHD 방송채널을 개국했으며 2016년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를 시작했다.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유동자산	279	353	390	466	523
현금성자산	140	68	113	142	17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6	128	137	178	188
재고자산	3	1	2	2	2
비유동자산	432	425	421	434	447
투자자산	24	26	27	28	29
유형자산	311	298	290	298	306
무형자산	64	65	67	69	72
자산총계	711	778	811	900	970
유동부채	144	151	139	187	21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8	134	130	135	140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1	1	1	1	1
유동성장기부채	3	0	0	0	0
비유동부채	74	80	81	81	82
사채	60	62	62	62	62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1	1	1	1	1
부채총계	218	231	220	268	293
지배주주지분	489	542	587	626	671
자본금	120	120	120	120	120
자본잉여금	163	163	163	163	163
기타자본	(7)	(7)	(7)	(7)	(7)
이익잉여금	214	266	310	350	395
비지배주주지분	4	5	5	6	6
자본총계	493	546	592	632	677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영업활동현금흐름	158	155	138	164	179
당기순이익	73	69	62	57	6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75	80	81	81	83
무형자산상각비	21	19	19	19	20
자산부채변동	(42)	(12)	(23)	7	13
기타	31	(1)	(1)	0	1
투자활동현금흐름	(92)	(210)	(76)	(118)	(127)
유형자산투자	(84)	(71)	(73)	(89)	(91)
유형자산매각	0	0	0	0	0
투자자산순증	20	(121)	1	(1)	(1)
무형자산순증	(28)	(19)	(21)	(22)	(22)
기타	0	1	17	(6)	(13)
재무활동현금흐름	(36)	(17)	(17)	(17)	(17)
자본의증가	0	0	0	0	0
차입금의순증	(19)	0	0	0	0
배당금지급	(17)	(17)	(20)	(17)	(17)
기타	0	0	3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	29	(72)	45	29	34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매출액	661	665	686	711	736
영업이익	100	81	75	73	79
금융수익	3	4	12	5	5
이자수익	3	3	4	5	5
금융비용	3	2	4	2	2
이자비용	2	2	2	2	2
기타영업외손익	(2)	(1)	(4)	(1)	(1)
관계기업관련손익	(1)	(0)	2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97	81	81	74	81
법인세비용	24	12	19	17	19
연결당기순이익	73	69	62	57	6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73	69	61	56	61
기타포괄이익	0	(0)	(0)	(0)	(0)
총포괄이익	73	69	62	57	62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73	69	61	56	61
EBITDA	196	180	175	173	182

주요투자지표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주당지표(원)					
EPS	1,529	1,443	1,290	1,182	1,290
BPS	10,388	11,488	12,421	13,247	14,179
DPS	350	415	350	350	35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1.3	0.6	3.1	3.6	3.5
영업이익증가율	25.8	(19.0)	(6.5)	(3.7)	8.3
순이익증가율	32.1	(5.6)	(10.6)	(8.4)	9.1
EPS증가율	32.2	(5.6)	(10.6)	(8.4)	9.1
EBITDA증가율	18.8	(8.2)	(2.7)	(1.2)	5.3
수익성(%)					
영업이익률	15.1	12.1	11.0	10.2	10.7
순이익률	11.0	10.3	8.9	7.9	8.3
EBITDA Margin	29.6	27.0	25.5	24.3	24.7
ROA	10.5	9.2	7.8	6.6	6.6
ROE	15.8	13.3	10.9	9.3	9.5
배당수익률	2.0	2.4	2.4	2.4	2.4
배당성향	22.9	28.8	27.1	29.6	27.1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106)	(157)	(186)	(221)	(268)
차입금/자본총계비율(%)	13.1	11.7	10.6	10.0	9.3
Valuation(X)					
PER	11.3	12.0	11.4	12.4	11.4
PBR	1.7	1.5	1.2	1.1	1.0
EV/EBITDA	3.7	3.7	3.0	2.8	2.4

월간 매크로 포커스

경기확장국면 진입에 따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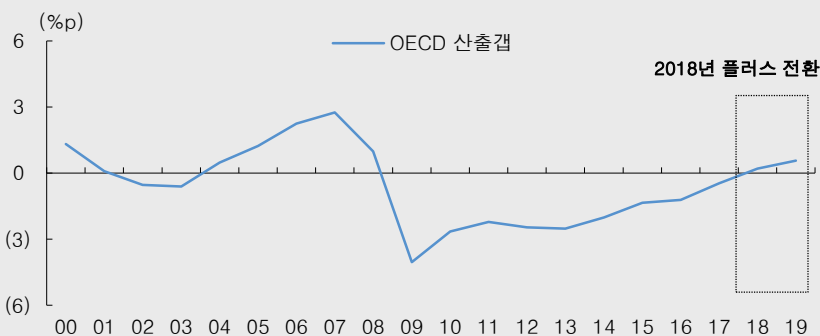
10년만의 자생적 경기확장국면 진입 이후

글로벌 경기는 확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의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경기회복을 마치고 자생적인 경기확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사이클이 회복에서 확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환경도 급속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예상하는 3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 경기과열 시그널이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금리와 유가 및 글로벌 주식시장의 거침없는 상승은 경기 확장국면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즉 버블이나 경기 정점이 아닌 경기확장국면 초기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 2)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공급측 요인과 더불어 임금상승이 본격화 되면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자극되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3) 정책 소통 실패와 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환경에 비해 시장과 정책 당국자들의 적응과정은 느릴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연준 리더십 교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OECD 산출갭 플러스 전환



자료: OECD, 한국투자증권

목차

- I. 매크로 이슈 포커스 1
 - 경기확장국면 진입에 따른 특징
- II. 매크로 이벤트 포커스 8
 - 1. 중국 인민은행이 보내는 긴축 시그널
 - 2. 월간 글로벌 경제전망 요약
 - 3. 이번 달 주목해야 할 이벤트
- III. 주요국 12M FWD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 15
- IV. Appendix 21

박정우

jw.park@truefriend.com

정희성

hs.jeong@truefriend.com

김다경

dahkyung.kim@truefriend.com

KIS Style Idea

2월 스타일 아이디어: 신흥국을 바라보자

EM 수출주: 신흥국의 수요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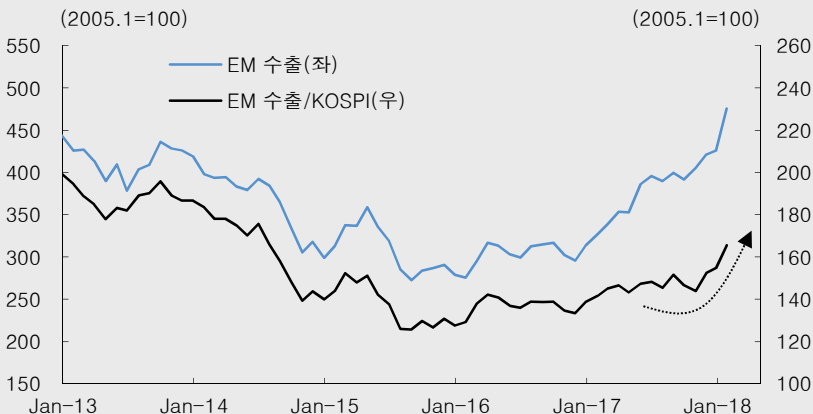
한국의 성장 동력은 단연 수출이다. 수출이 좋아야 경제도 성장한다. 올해는 더욱 그렇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전년보다 높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은 올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물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상향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 경기가 의미있는 반등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긍정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2월에는 신흥국 수출과 관련된 스타일을 주목한다. 동 스타일은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인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에서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매출처가 주로 아시아, 남미 지역인 종목 20개로 구성된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Oil, 현대건설 등 시클리컬 종목들이 다수 포함된다. 추가로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IT와 바이오 종목도 일부 들어있다.

1월 스타일 특징: 하이베타 강세, 성장주 약세

1월 주식시장에선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하이베타 스타일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 중반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스타일을 주도했고 이후로는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 증권주가 시세를 지지했다. 반면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익모멘텀 둔화와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성장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배당모멘텀이 소멸된 고배당주도 횡보세를 나타냈다.

EM 수출 스타일과 상대강도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목차

- I. 2월 스타일 아이디어: 신흥국을 바라보자..... 1
 - 1.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
 - 2. 신흥국을 보는 이유
 - 3. 추천 스타일: EM 수출주
- II. KIS 스타일 성과 분석..... 10
 - 1. KIS 스타일 개요
 - 2. KIS 스타일 분류
 - 3. KIS 스타일 성과

김대준
daejun.kim@truefriend.com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기관 매도 속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 뉴욕증시는 최근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부담감 속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국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로 일제히 하락 마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초반 순매수세를 보였던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서고,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며 1% 이상 급락 속 2,57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장중 920P선을 이탈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며 920P로 마감. 연일 최고치 경신에 따른 부담감 속 글로벌 증시 하락에 동조화 흐름을 보이며 양 지수 모두 6거래일 만에 하락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멘스와의 공급계약 체결로 베트남 법인 성장 모멘텀이 확대됐다는 분석에 씨에스원드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올해 중국항 염모제 매출 증가 기대감 및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 소식에 동성제약이 상한가를 기록. 자회사 삼양바이오팜이 외과수술 없이 정맥주사로 암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소식에 삼양홀딩스가 신고가를 경신. 또한, 주방/생활가전 부문 매출 성장에 따른 외형성장 및 본사 이전 관련 이슈에 따른 일회성 비용 해소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대유위니아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주택부문의 견조한 매출 성장 전망과 해외 부문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힘입어 GS건설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임. 반면,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F&F가 5% 이상 급락했으며, 외국계 매도세로 6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종목/테마	내용
씨에스원드(112610) ▶37,250 (+2.62%)	베트남 법인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베트남 공장이 지멘스와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Hornsea1(1,218MW)에 필요한 타워의 약 80% 이상의 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 경신 - 지난 2016년 착공한 미국 풍력 프로젝트의 타워 발주가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적 개선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동성제약(002210) ▶10,650 (상한가)	중국 염모제 매출 증가 기대감에 상한가 - 올해 중국항 염모제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상한가. 올해 입점 점포수를 280여개에서 600개 수준으로 확장 시킬 계획 - 아울러, 광과민성 물질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광역학 암치료(PDT)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해당 암 환자 대상으로 해당 약효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임상 2상이 진행 중
대유위니아(071460) ▶3,510 (+15.84%)	실적 성장 기대감에 초강세 - 주력 제품인 김치냉장고 외에 에어컨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세탁기, 제습기 등 주방·생활가전 부문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초강세 - 아울러, 지난해 본사 이전 관련 이슈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해소돼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제약바이오주	신약 개발 및 기술수출 기대감 등으로 강세 -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부각되며 한미약품이 강세를 보였으며, IVIG-SN의 복미 진출 기대감에 녹십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짐 - 대웅제약(069620, +7.87%), 부광약품(003000, +7.55%), 대화제약(067080, +5.68%), 삼천당제약(000250, +5.57%), 대웅(003090, +4.57%), 녹십자(006280, +3.99%), 한미약품(128940, +2.53%)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삼양홀딩스(000070) ▶145,500 (+18.29%)	- 자회사 삼양바이오팜이 외과수술 없이 정맥주사로 암을 사멸하는 신약 후보 물질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제이엔케이이더티(126880) ▶5,080 (+8.09%)	- 친환경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수소충전소용 대용량 수소제조장치 개발 및 운용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TP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TPC (048770)	7150 (+5.5)	677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고정비 및 시장 진입비용 반영 완료에 따른 턴어라운드 전망 - 정밀제어를 요구하는 자동화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모션콘트롤 사업부분의 실적 개선 전망 -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전망
코텍 (052330)	15,650 (+6.8)	14,650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슬롯머신 1위, 2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한 카지노용 모니터 생산 기업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 - 고객사의 커브드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으로 카지노모니터 부문의 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 현금성자산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 보유
녹십자 (006280)	247,500 (+9.5)	226,0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진입장벽과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유하고 있어 Valuation Premium 부과 가능 - 국내 Plasma와 백신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 확보로 구조적 성장 기대 - Plasma 증설효과 발생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기대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7,500 (+41.1)	12,4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14,800 (+13.8)	13,0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다나와 (119860)	15,950 (+17.3)	13,6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쇼핑 증가에 따라 가격비교 수요의 저변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PC중심에서 가전/가구,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으로의 플랫폼 확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기대 -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순현금 보유로 주가 하방경직성 확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한솔시큐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K이노베이션 (096770)	210,000 (+2.7)	204,500 (12/28)	44,967	5,308	2,919	31,321	6.4
			- 정유 수급이 타이트해져 내년 정제마진 상승 가능성 확대 - 지속 가능한 ROE 개선을 감안할 때 주당 적정가치는 372,153원 혹은 그 이상 상승 가능 - 내년 배당수익률은 6%에 근접하여 매력적인 배당도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 가능				
CJ E&M (130960)	89,900 (-8.0)	97,700 (12/28)	1,982	110	166	4,308	21.8
			-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해외 매출 성장 가속화 전망 - 디지털 광고 등 고마진 사업 확대로 수익성 향상 전망 - 사업 부문간 시너지 확대, 자회사 가치 상승 예상				
한솔시큐어 (070300)	6,200 (+5.1)	5,900 (12/28)	19	3	2	272	21.7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7,500 (+33.6)	13,100 (12/28)	92	11	9	1,446	11.9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SK텔레콤 (017670)	267,000 (0.0)	267,000 (12/28)	17,753	1,757	3,033	42,955	6.4
			- IPTV 수익호전,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 5G 서비스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 -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요금상향으로 이어져 손익에 긍정적 -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 배당 매력				
이앤티 (091120)	17,750 (+0.9)	17,600 (12/28)	191	14	10	659	26.6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이노베이션, CJ E&M,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1/30(화) 증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567.74	-1.17	1.23	4.06	4.06
KOSPI200	333.40	-1.38	0.75	2.67	2.67
대형주	2,485.67	-1.42	0.63	2.75	2.75
중형주	3,019.19	0.07	3.57	10.38	10.38
소형주	2,279.40	-0.28	4.72	12.09	12.09
KOSDAQ	920.96	-0.66	2.97	15.35	15.35
KOSDAQ150	1,687.66	-0.88	2.51	19.37	19.37

수급	1/30(화)	1D	5D	1M	YTD
	KOSDAQ	1,243	1,262	1,155	1,155
거래대금 (십억 원, 기간 평균)	KOSPI	7,759	7,893	6,966	6,966
	KOSDAQ	8,657	8,735	8,722	8,722

(단위: %, bp)

금리	1/30(화)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31	1.30	11.90	17.20	17.20
국고채 5년물	2.60	2.70	15.00	25.50	25.50
국고채 10년물	2.81	5.50	16.00	33.80	33.80
회사채 3년(AAA-)	2.70	1.20	10.50	15.70	15.70
회사채 3년(BBB-)	8.96	1.20	12.00	16.70	16.70

(단위: 원, %)

외환	1/30(화)	1D	5D	1M	YTD
원/달러	1073.70	-0.76	-0.31	-0.65	-0.59
원/100엔	986.90	-0.66	-1.51	-4.09	-4.06
원/유로	1326.52	-0.29	-1.07	-3.51	-3.80
원/위안	169.76	-0.78	-1.40	-3.43	-3.36

업종 지수	1/30(화)	등락률(%)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709.06	-0.43	-2.19	-1.78	-1.78
반도체	2,726.06	-2.32	0.79	-2.07	-2.07
헬스케어	4,858.32	0.3	5.38	26.35	26.35
은행	997.52	0.4	-1.67	6.47	6.47
에너지화학	2,932.24	-0.66	3.2	6.08	6.08
철강	2191.25	-1.18	1.02	6.74	6.74
방송통신	1,034.37	-0.37	-2.56	0.77	0.77
건설	649.39	0.84	4.41	15.78	15.78
증권	883.13	-1.42	2.51	23.94	23.94
기계장비	650.51	-1.26	3.51	21.55	21.55
보험	1992.46	-0.67	-1.37	2.91	2.91
운송	636.15	0.51	4.9	9.5	9.5
유틸리티	1,269.52	-1.09	2.34	7.8	7.8

업종 지수	1/30(화)	1D	5D	1M	YTD
기술주	2,074.50	-0.71	3.23	20.94	20.94
소재	1,542.38	-1.70	0.37	-1.79	-1.79
산업재	357.92	-2.34	-2.35	14.41	14.41
필수소비재	1,151.02	-1.94	-3.81	12.66	12.66
자유소비재	1,223.44	-1.67	-5.41	4.65	4.65
정보기술	767.79	-2.05	0.09	1.19	1.19
생명기술	6,031.19	-0.11	3.91	28.03	28.03
문화기술	2,335.57	-2.33	-2.91	4.45	4.45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4,271	1,951	1,712	405	128	349	151	23	283	230	87
	매도	4,018	2,073	1,569	488	129	273	233	25	284	281	74
	순매수	253	-122	-143	-83	0	76	-82	-2	-1	-51	12
	2018년 1월 누계	-2,906	2,621	-447	-344	323	68	-165	-73	-260	4	733
	2018년 누계	-2,906	2,621	-447	-344	323	68	-165	-73	-260	4	733
코스닥	매수	7,648	567	651	101	20	100	91	3	64	22	41
	매도	7,338	607	402	360	18	100	91	6	49	27	62
	순매수	310	-41	-249	-259	1	1	0	-3	15	-5	-20
	2018년 1월 누계	976	306	-981	-619	-31	216	-400	-39	-61	-47	-301
	2018년 누계	976	306	-981	-619	-31	216	-400	-39	-61	-47	-301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477	반도체	-1,777
	건설,건축관련	347	철강	-289
	에너지	261	IT가전	-218
	화학	128	상사,자본재	-180
	운송	99	보험	-168
종목	S-Oil	205	SK하이닉스	-800
	삼성바이오로직스	144	삼성전자	-624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144	POSCO	-269
	현대중공업	133	KODEX 레버리지	-231
	한미약품	13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223
	현대글로벌비스	81	삼성생명	-195
	대림산업	78	삼성SDI	-179
	KODEX 200선물인버스2X	77	한국전력	-171
	롯데정밀화학	76	삼성에스디에스	-156
	KODEX 인버스	75	LG	-122
	은행	202	반도체	-1,041
	에너지	147	소프트웨어	-378
	건강관리	139	보험	-159
	유틸리티	133	IT하드웨어	-152
	운송	128	기계	-126
현대차	165	삼성전자	-1,025	
SK이노베이션	129	SK하이닉스	-341	
한미약품	106	삼성생명	-163	
고려아연	104	NAVER	-158	
신한지주	102	카카오	-142	
한국전력	97	현대모비스	-126	
SK	72	삼성바이오로직스	-121	
SG총방	70	대림산업	-106	
삼성화재	68	현대로보틱스	-105	
하나금융지주	64	삼성전기	-84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은행	38	건강관리	-1,214
	비철,목재등	12	반도체	-352
	IT가전	4	소프트웨어	-247
	운송	2	IT하드웨어	-199
	유틸리티	0	미디어,교육	-151
종목	셀트리온헬스케어	163	셀트리온	-637
	서울반도체	35	풀어비스	-73
	에스디생명공학	29	솔브레인	-68
	포스코컴텍	27	휴젤	-58
	대한광통신	22	웹젠	-47
	에스피지	15	오스템임플란트	-47
	셀바이오텍	13	테스	-46
	DSC인베스트먼트	12	신라젠	-45
	에스엔텍	12	차바이오텍	-42
	티에스인베스트먼트	11	컴투스	-40
	소프트웨어	164	디스플레이	-206
	은행	25	IT하드웨어	-144
	기계	16	화학	-54
	호텔,레저서비스	9	필수소비재	-42
	운송	7	자동차	-38
대한광통신	48	셀트리온	-133	
씨젠	34	셀트리온헬스케어	-122	
피에스케이	30	서울반도체	-113	
로엔	26	CJ E&M	-46	
아모텍	26	비아트론	-39	
대화제약	26	솔브레인	-34	
테스	25	SKC코오롱PI	-32	
삼천당제약	24	네이처셀	-32	
SK머티리얼즈	22	인터플렉스	-23	
메디톡스	21	CMG제약	-21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321,455	2,490,000	-2.77	-2.28
SK하이닉스	53,217	73,100	-2.92	-4.44
현대차	34,363	156,000	0.97	0.00
POSCO	33,087	379,500	-3.19	14.14
LG화학	30,778	436,000	-1.25	7.65
NAVER	30,688	931,000	-0.11	7.01
삼성바이오로직스	28,848	436,000	-0.80	17.52
KB금융	27,972	66,900	-0.45	5.52
삼성물산	26,272	138,500	-2.46	9.92
신한지주	25,322	53,400	1.33	8.10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	40,063	326,600	-0.52	47.7
셀트리온헬스케어	18,678	136,000	4.21	25.2
신라젠	7,495	110,100	0.09	17.8
바이로메드	4,632	290,300	0.10	77.8
티슈진	3,597	59,500	-1.16	14.9
CJ E&M	3,482	89,900	-0.99	-8.0
메디톡스	3,379	597,300	0.02	23.2
셀트리온제약	3,317	99,500	-0.40	62.6
풀어비스	3,070	254,400	-1.59	2.8
포스코컴텍	3,024	51,200	1.19	28.6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46.89	-0.62	0.31	6.60	6.60	
	MSCI 선진국	2,234.22	-0.65	0.19	6.22	6.22	
	MSCI 신흥국	1,267.98	-0.40	1.25	9.45	9.45	
DM	S&P500	2,853.53	-0.67	0.73	6.73	6.73	
	Dow Jones	26,439.48	-0.67	0.86	6.96	6.96	
	Nasdaq	7,466.51	-0.52	0.79	8.16	8.16	
	Russell 2000	1,598.11	-0.62	-0.44	4.08	4.08	
	영국 FTSE 100	7,631.72	-0.52	-1.29	-0.73	-0.73	
	프랑스 CAC	5,503.18	-0.33	-0.58	3.59	3.59	
	독일 DAX 30	13,260.80	-0.48	-2.20	2.66	2.66	
	스페인 IBEX	10,463.90	-0.87	-1.37	4.18	4.18	
	일본 니케이	23,291.97	-1.43	-3.45	2.32	2.32	
	홍콩 항셱	32,607.29	-1.09	-0.98	8.98	8.98	
	EM	코스피	2,567.74	-1.17	1.23	4.06	4.06
		코스닥	920.96	-0.66	2.97	15.35	15.35
중국 상해종합		3,488.01	-0.99	-1.65	5.47	5.47	
홍콩 H지수		13,389.38	-1.98	-0.75	14.35	14.35	
인도 Sensex		36,033.73	-0.69	0.66	5.80	5.80	
베트남 VN		1,110.56	0.07	2.13	12.83	12.83	
인도네시아 JCI		6,575.49	-1.57	-0.90	3.46	3.46	
러시아 RTS		1,290.14	1.14	0.50	11.76	11.76	
브라질 Bovespa		84,698.02	-0.97	4.28	10.86	10.86	
멕시코 Mexbol		50,636.32	-0.84	1.32	2.60	2.60	
글로벌 업종		에너지	188.04	-0.37	-0.50	7.78	7.78
		소재	229.54	-0.53	0.67	6.37	6.37
	산업재	308.51	-0.28	-0.26	5.56	5.56	
	경기소비재	280.51	-0.23	-0.24	5.76	5.76	
	필수소비재	316.47	-0.02	0.61	5.64	5.64	
	헬스케어	582.12	0.02	1.55	10.21	10.21	
	금융	196.46	-0.52	-0.11	7.93	7.93	
	IT	388.00	-0.33	-0.73	6.77	6.77	
	통신서비스	182.27	-0.32	0.20	2.87	2.87	
	유틸리티	170.40	-0.15	-0.33	-0.16	-0.16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89.12	-0.22	-1.12	-3.27	-3.27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5.42	0.16	-1.15	-3.82	-3.07
미주	브라질	3.15	0.03	2.66	5.01	5.01
	멕시코	18.62	-0.09	0.39	5.56	5.56
아시아	한국	1,073.70	-0.76	-0.31	-0.65	-0.59
	일본	108.55	0.38	1.62	3.76	3.81
	중국	6.33	0.25	1.26	2.87	2.87
	대만	1.24	-0.01	-1.18	-3.58	-3.57
	인도	63.63	-0.06	0.24	0.07	0.38
유럽	유로존	1.24	0.23	0.92	3.33	3.39
	영국	1.41	0.09	0.62	4.33	4.25
	러시아	55.92	0.71	0.83	3.17	3.17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68	-1.11	6.94	27.71	27.71
	캐나다	2.28	1.80	4.00	23.50	23.50
	브라질(USD)	9.77	6.70	-13.70	-48.70	-48.70
유럽	멕시코	7.60	-0.70	5.00	-6.00	-6.00
	독일	0.67	-2.20	11.10	24.50	24.50
	영국	1.44	-1.50	8.50	24.80	24.80
아시아	프랑스	0.96	-1.50	11.30	17.00	17.00
	이탈리아	2.01	-1.50	12.20	-0.50	-0.50
	러시아	4.18	6.10	6.30	31.00	31.00
	한국	2.81	5.50	16.00	33.80	33.80
	일본	0.10	0.80	2.10	4.90	4.90
중국	중국	3.94	-1.40	-1.90	3.30	3.30
	호주	2.86	0.90	3.00	23.10	23.10
	인도	7.44	-0.50	13.00	11.10	11.1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60.59	-0.62	1.08	4.10	4.10
	LMEX 지수	3,430.80	0.06	2.29	0.35	0.35
	CRB 지수	441.54	0.36	0.72	2.13	2.13
에너지	원유(WTI)	65.56	-0.88	3.26	8.51	8.51
	원유(Brent)	69.32	-0.20	-0.91	3.66	3.66
	천연가스	3.18	0.38	-7.69	7.65	7.65
금속	금	1,340.30	-0.87	0.63	2.37	2.37
	은	17.13	-1.80	0.81	-0.10	-0.10
	구리	7,085.00	0.00	0.24	-2.24	-2.24
	아연	3,550.00	2.07	3.98	6.96	6.96
농산물	알루미늄	2,225.00	-1.42	-1.07	-1.90	-1.90
	S&P 농산물 지수	285.78	0.71	2.33	1.29	1.29
	옥수수	358.75	0.63	1.92	2.28	2.28
	밀	449.25	1.87	5.52	5.21	5.21
	대두	991.50	0.61	0.74	3.09	3.09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13.96	0.87	25.77	26.45	26.45
유럽	VSTOXX	14.10	6.05	17.96	4.33	4.33
한국	VKOSPI	14.23	6.04	11.61	17.99	17.99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韓> 실적발표: 롯데케미칼 美> 실적발표: Netflix, Verizon, P&G 유럽> 1월 ZEW 서베이 예상 (31.8, n/a, 29.0) 1월 소비자기대지수 (1.3, 0.6, 0.5)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 -0.1%, -0.1%) 11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1.0%, 0.9%, 0.3%)	韓> 실적발표: LG디스플레이 美> 실적발표: GE 1월 마켓 제조업 PMI (55.5, 55.0, 55.1) 12월 기준주택매매(백만) (5.57, 5.70, 5.81)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5%, n/a, 4.1%) 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59.6, 60.3, 60.6) 日> 1월 닛케이 제조업 PMI (54.4, n/a, 54.0)	韓> 실적발표: POSCO 美> 실적발표: GE 1월 마켓 제조업 PMI (55.5, 55.0, 55.1) 12월 기준주택매매(백만) (5.57, 5.70, 5.81)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5%, n/a, 4.1%) 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59.6, 60.3, 60.6) 日> 1월 닛케이 제조업 PMI (54.4, n/a, 54.0)	韓> 실적발표: SK하이닉스, NAVER, 현대제철 4Q GDP SA YoY (3.0%, 3.4%, 3.8%) 美> 실적발표: Ford, Paypal, Celgene, Freeport Mcmoran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33, 237, 216) 12월 도매재고 MoM (n/a, 0.4%, 0.8%) 12월 선행지수 (0.6%, 0.5%, 0.4%)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0.4%, -0.4%, -0.4%)	韓> 실적발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1월 소비자심리지수 (109.9, n/a, 110.6) 美> 실적발표: Intel 4Q GDP 연간화 QoQ (2.6%, 3.0%, 3.2%) 12월 내구재주문 (2.9%, 0.6%, 1.7%) 유럽> 12월 M3 통화공급 YoY (4.6%, 4.9%, 4.9%) 日> 12월 전국 CPI YoY (1.0%, 1.1%, 0.6%)
29	30	31	1	2
韓> 실적발표: 대림산업 美> 실적발표: Lockheed Martin 12월 개인소득 (0.4%, 0.3%, 0.3%)	韓> 실적발표: S-Oil 美> 실적발표: Pfizer, Mcdonalds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n/a, 123.0, 122.1) 유럽> 4Q GDP SA YoY (n/a, 2.7%, 2.6%) 1월 소비자기대지수 (n/a, 1.3, 1.3) 日> 12월 실업률 (2.8%, 2.7%, 2.7%) 12월 유효구인배율 (1.59, 1.57, 1.56)	韓> 실적발표: SK이노베이션 美> 실적발표: Qualcomm, Boeing FOMC 금리결정 (n/a, 1.50%, 1.50%)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4.5%) 中> 1월 제조업 PMI (n/a, 51.5, 51.6)	韓> 실적발표: KT&G, LG유플러스 1월 수출 YoY (n/a, n/a, 8.9%) 1월 CPI YoY (n/a, n/a, 1.5%) 美> 실적발표: DowDupont, AT&T, Amazon, Mastercard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35, 233) 1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5.5) 유럽> 1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9.6) 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51.5, 51.5)	韓> 실적발표: 하나금융투자, 풍산 美> 실적발표: Visa, Apple, Exxon Mobil 1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 (n/a, 200, 148) 1월 실업률 (n/a, 4.1%, 4.1%) 1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5.0, 94.4) 12월 내구재주문 (n/a, n/a, n/a)
5	6	7	8	9
韓> 실적발표: SK텔레콤	韓> 실적발표: KT, 고려아연, 만도 美> 실적발표: GM, Allergan 1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9.5, -50.5)	韓> 실적발표: 신한지주, CJ E&M 美> 실적발표: Gilead Sciences, Disney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韓> 윤선만기일 실적발표: KB금융, 현대중공업 美> 실적발표: Nvidia, Humana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기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日> 1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2.7%, 1347.3)	韓> 실적발표: 기업은행, 롯데쇼핑, 한온시스템 美> 실적발표: AIG, 12월 도매재고 MoM (n/a, n/a, n/a) 中> 1월 PPI YoY (n/a, n/a, 4.9%) 日> 12월 3차 산업지수 MoM (n/a, n/a, 1.1%)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